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수업 사례 연구 - 김춘수의 「꽃」을 중심으로 -

손 현 미*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수업 설계
4. 수업 사례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김춘수의 「꽃」을 활용한 한국문학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문학 교육의 실제적 기능성과 교육적 의의를 탐색한 것이다. 수업은 작품 감상 및 해설, 모국어 번역, 모방시 쓰기, 감상문 발표, PPT 발표의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생성된 학습자 산출물을 토대로 의미 구성 방식과 표현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번역 과정에서 시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각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모방시 쓰기에서는 가족·친구·기억 등 개인적 대상을 새로운 ‘꽃’으로 바꾸어 표현하며 원시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정서와 경험을 시적 이미지로 풀어냈다. 감상문 발표에서는 ‘이름 부르기’를 관계 맺기, 존재 인정, 문화적 정체성 탐색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며 보다 심화된 성찰을 나타냈다. 이어서 진행된 PPT 발표에서는 창작물과 개인적 서사를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소통과 공

* 경북대학교 국제처 강사(hymes1008@knu.ac.kr)

감을 높이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김춘수의 「꽃」이 유학생의 정서적 몰입과 자기 성찰, 창의적 표현, 문화 이해를 동시에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텍스트임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2주간의 단기 수업 사례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배경과 수준의 학습자를 포함한 장기적 수업을 통해 문학 교육의 효과를 보다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한국문학, 김춘수의 「꽃」, 수업 사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1. 서론

오늘날 한국어교육 현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국제화와 더불어 K-Pop,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확산된 한류는 한국어 학습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기 어학연수를 넘어 정규 대학 과정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¹⁾ 유학생들은 학문적 목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한국 문화와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 교양 수업이나 전공 과정에서 활용되는 교재와 수업은 여전히 언어 기능 위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가 언어적 흥미와 학문적 동기를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²⁾

1)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 3,980명에서 2010년 83,54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 시기에는 153,695명으로 집계되어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이후 5년간 약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 2025년 현재 253,434명에 도달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상당한 증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5년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79,190명으로,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 74,244명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2) 김금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동환, 「한국 문학 및 한국 문화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해외 한국어 관련 학과의 수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습자의 내적 성찰과 문화적 공감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적 매체로 주목된다. 문학 작품은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언어를 통해 타문화를 체험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된다. 특히 시는 짧은 분량 속에 함축적 언어와 상징을 담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언어적·정서적 자극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시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어휘·문법 지식을 넘어서는 통합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학 수업의 한 꼭지로 다루어진 김춘수의 「꽃」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춘수의 「꽃」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존재가 의미를 가진다'는 주제를 담고 있어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 보편적 공감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존재와 관계, 의미 형성이라는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학습자가 자기 경험과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특히 김춘수의 「꽃」은 한국 사회에서 널리 읽혀 온 대표적인 시로 한국인의 일상적 문화 감수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 시를 바탕으로 감상·번역·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은 텍스트 이해를 넘어 한국인과 공유 가능한 문화적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김춘수의 「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춘수의 「꽃」을 중심으로 한 문학 교육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일본·중국의 3국이 함께 운영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CAMPUS Asia Program)³⁾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로,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면서도 한국

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5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24; 오정미, 「문화적응을 적용한 문화교육 수업 사례 연구 -K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12.

3) CAMPUS Asia는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의 약자로, 한국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중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중·일 3국 간 대학생 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말한다.

어를 매개로 공동 학습을 수행한 다문화적 학습 집단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수업의 실제 운영 과정을 기록하여 문학 텍스트 활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 수업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 감상 및 이해, 번역, 모방시⁴⁾ 쓰기, 감상문 공유, PPT 발표 활동을 분석하여 문학 수업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뿐 아니라 문화 이해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의 의의와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향후 문학 기반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은 오랫동안 보조 자료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언어문화 및 정서를 통합하는 매체로서 그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⁵⁾ 특히 시 텍스트는 짧고 압축적인 언어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참여를 유도하며⁶⁾ 모방시 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학습자가 원작의 구조를 변주하면서 자기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⁷⁾ 이러한 연구 동향은 국내외 연구 모두

4) 패러디(Parody)와 모방(Imitation)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본고에서는 두 용어가 지닌 맥락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모방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참고문헌에서 '패러디 시'로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5) 김동환, 앞의 논문, 173~204쪽; 위햇님·오지혜, 「일본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방향 -교양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81, 우리말학회, 2025.

6) 고은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 방안 연구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9, 중앙어문학회, 2019; 한옥순,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 연구 -김춘수 <꽃>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8, 한국작문학회, 2013.

7) 김금숙, 「한국어 학습자의 비유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모방시 쓰기 수업 연구」, 『인문논총』 46,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주재환, 「패러디 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 45,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21; 한혜민·조영미,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모방시 쓰기는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과정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넓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 교육의 의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 교육의 필요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동환은 해외 한국어 관련 학과의 수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학과 문화 교육을 결합할 때 학습자의 학문적 흥미와 상호문화적 이해가 뚜렷하게 증진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문학 작품을 단순한 언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토론·감상문 작성·발표 등 학습자 중심 활동과 연결했을 때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자기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성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⁸⁾ 이를 통해 문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학습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햇님·오지혜는 일본 대학의 교양 한국문학 수업을 분석하면서, 문학 수업이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학습자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장으로 작동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수업에서 발표와 토론, 조별 협력 활동이 강화될수록 학습자들은 텍스트 해석을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타 문화 학습자와의 대화와 공감으로 확장시켰다.⁹⁾ 이는 문학 수업이 언어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유학생에게 정서적 소속감과 학습 공동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

국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이 확인되는데 Naik et al.은 문학 기반 언어 교수법을 다룬 논문에서 문학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문화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매개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는 언어

3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21; Eshमतov, A. B., & Abduramanova, D. V., "The role of parody in postmodern literature", *Modern Education and Development*, 15(7), 2024.

8) 김동환, 앞의 논문, 173~204쪽.

9) 위햇님·오지혜, 앞의 논문, 161~196쪽.

적 구조뿐 아니라 타자의 삶과 세계관을 접하며 이를 통해 다층적인 사고와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¹⁰⁾

이상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문학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언어·문화·정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학을 단순한 보조 자료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문적 흥미, 문화적 적응, 정서적 성찰을 촉진하는 핵심 매체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2) 시 교육과 감상·창작의 연계

시는 짧고 압축적인 언어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을 이끄는 장르이다. 또한 보편적 인간 경험을 담고 있기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습자에게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 교육은 언어 학습을 넘어 자기 경험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성찰적 학습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고은미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 텍스트가 단순한 읽기 자료를 넘어 언어 학습의 효율성과 정서적 공감을 동시에 높이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짧은 구조와 반복적 표현은 학습자가 언어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고, 함축적 의미는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인지적·정서적 효과를 함께 이끌어냈다.¹¹⁾ 그러나 연구가 초급 수준 학습자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용 가능한 시 교육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옥순은 김춘수의 「꽃」을 활용해 학습자 감상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이 「존재와 이름 부르기」라는 주제를 자기 경험과 연결하여 자기 성찰로 확장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 교육이 학습자의 개인적 서사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¹²⁾ 하지만 감상문이라는 단일 활동에 집중함

10) Naik, C. V., Biradar, R., Putta, N. R., & Ramanjaneyulu, K., "The role of literature in language pedagogy: Exploring innov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English through literary work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ycle Research*, 16(6), 2024.

11) 고은미, 앞의 논문, 293~323쪽.

12) 한옥순, 앞의 논문, 243~266쪽.

으로써 수업 전반의 다양한 활동이나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김현정은 운동주의 작품을 학문 목적 유학생 수업에 적용해 학습자들이 감상과 글쓰기를 통해 작품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주제를 학문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밝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학문적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을 밝혔다.¹³⁾ 그러나 학문적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문학 수업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탐구하지는 못했다.

Moldagali et al.(2024)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 교육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읽기·쓰기·이해력 향상에 대한 종합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쓰기와 이해력에서 두드러진 향상이 확인되었다.¹⁴⁾ 이는 시 교육이 학습자의 능동적 표현과 사고 확장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 교육은 학습자에게 언어적 성취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효과가 교실 안에서 더 풍부하게 드러나려면 감상 활동이 창작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방시 쓰기는 원작의 구조와 표현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기에 시 교육의 효과를 확장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3) 모방시 쓰기의 교육적 가능성

모방시 쓰기는 학습자가 원작의 구조와 표현을 빌려오되 여기에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덧붙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창작 활동이다. 즉, 단순히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13) 김현정,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문학 수업 사례 연구 -운동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9,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14) Moldagali, M., Osmanova, Z., & Nurgazyev, T.,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innovative poetry teaching methods on reading, writing, and comprehension skills”,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5(5), 2024.

촉진하는 교수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금숙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모방시 쓰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은유와 상징 같은 비유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⁵⁾ 이는 단순히 원문을 따라 쓰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기 경험과 정서를 시적 언어로 풀어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주재환은 패러디 시 쓰기 활동을 교수 학습 모형으로 구체화하면서 학습자가 원작의 구조를 변주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자기화할 뿐 아니라 어휘와 문법 학습으로도 확장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¹⁶⁾ 한혜민·조영미는 실시간 원격 수업에 패러디 시 쓰기를 적용하여 학습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과 문화 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¹⁷⁾ 이 연구는 패러디 시 쓰기가 학습자의 창의적 표현과 언어 학습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외 연구들도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데, Nishihara(2013)는 학습자에게 원작과 패러디 시를 함께 제시하고 비교·분석하게 하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평가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패러디 활동이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니라 이해와 해석을 심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¹⁸⁾ Eshmatov & Abduramanova는 패러디가 포스트모던 문학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보았으며, 패러디가 기존 텍스트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비틀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였다.¹⁹⁾

따라서 모방시 쓰기는 언어 형식 학습에서 출발해 의미 생성, 자기 성찰, 그리고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는 연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문학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자기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라 할 수 있다.

15) 김금숙, 앞의 논문, 45~72쪽.

16) 주재환, 앞의 논문, 201~222쪽.

17) 한혜민·조영미, 앞의 논문, 1~16쪽.

18) Nishihara, T., "Evaluative comprehension for poetry with parody poems", *Bulletin of the Faculty of Human Cultures, Prefectural University of Hiroshima*, 8, 2013.

19) Eshmatov, A. B., & Abduramanova, D. V., 앞의 논문, pp.316~319.

앞서 검토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문학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시 텍스트는 짧은 분량과 상징적 표현을 통해 학습자의 몰입을 이끌어내며, 번역이나 모방시 쓰기, 감상문 작성과 같은 활동은 사고 확장과 표현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 연구들은 시 교육이 언어 능력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 비판적 이해, 창의적 표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많은 연구가 특정 활동이나 수준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수업의 전 과정을 다룬 사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김금숙은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의 목표와 모형을 제시하며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수업 사례의 축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²⁰⁾

이에 본 연구는 수업 운영 과정과 학습자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기존 연구들은 개별 활동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수업 안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연결되고 누적되는지를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시 교육의 연계적 효과를 실질적 수업 자료를 통해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시 감상 및 해석, 모국어 번역, 모방시 쓰기, 감상문, PPT 발표 및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수업 전개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학습자 반응을 분석하여, 시 교육이 학습자의 구조 이해와 의미 재구성, 창작을 통한 표현 확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수업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Campus Asia Program) 소속 외국인 유학생으로, 2025학년도 1학기에 ‘한국문학의 이해’를 수강한 일본인

20) 김금숙, 앞의 논문, 1~195쪽.

6명(남2, 여3)과 중국인 10명(남2, 여8), 총 16명이다. 캠퍼스아시아 학과는 한국·일본·중국 3개국 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년과 학기에 따라 세 나라의 캠퍼스를 순환하며 학습한다. 1학년과 4학년은 본국에서 수업을 듣고, 2·3학년 동안은 학기마다 한국·일본·중국 대학을 이동하며 수학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학생은 일본과 중국으로, 일본 학생은 한국과 중국으로, 중국 학생은 한국과 일본으로 파견된다.

파견된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다국적·다언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즉, 한국·일본·중국 3국의 학생이 함께 전공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뿐 아니라 과제 준비와 일상적 교류 속에서도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수시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넘나들며 의사소통하고, 이를 통해 언어적 유창성과 문화적 이해를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전공 및 언어 교류 경험을 축적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학 수업은 전공 교과목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으며²¹⁾ 학습자들은 한국 체류 두 번째 학기에 본 과목을 수강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학습자들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한 심화 학습과 창작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수업 설계

본 절에서는 2025학년도 1학기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다룬 여러 작품 가운데 김춘수의 「꽃」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교과목은 주 1회 2시수(2시간)로 운영되며, 김춘수의 「꽃」은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업의 전체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21) 연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2024학년도 1학기에 한국에서 수업을 들은 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일본인 학생은 중국으로, 중국인 학생은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2025학년도 1학기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곧 한국에 두 번째로 체류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수업이다.

〈표 1〉 김춘수의 「꽃」의 수업 구성

회차	주요 활동	세부 내용
1	시 읽기 및 감상	시 읽기, 시인의 육성 낭독 영상 감상
	작품 이해	작품 해설(핵심 시어와 주제 이해)
	번역 및 토론	일본인·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로 토론 및 번역
	창작 활동	모방시 쓰기
2	감상문 발표	과제로 제출한 감상문 발표
	PPT 발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대한 발표
	상호 피드백	질의응답 및 토론

김춘수의 「꽃」은 짧은 분량 속에 상징성과 보편성을 담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시를 감상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창작과 발표 활동으로 확장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 수업은 학습자가 문학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과 발표를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업은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창작과 발표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문학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작품을 자기 언어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며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 능력, 정서적 반응, 문화적 이해를 함께 심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 수업은 작품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먼저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며 시적 언어에 대한 직관적 반응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어 김춘수 시인의 육성 낭독 영상²²⁾을 감상하면서 시의 리듬과 정서를 청각적으로 체험하였다. 이후 교수자가 작품의 배경과 주제 의식, 핵심 시어를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보완하였고, 학습자들은 일본인·중국인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국어 번역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시의 의미를 자국

22) 김춘수 시인의 육성 낭독 영상은 2004년 12월 15일 MBC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시인 김춘수 - 바다로 돌아간 처용」에 담긴 것으로 유튜브(youtub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로 재구성하며 해석의 폭을 넓히도록 도왔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방시의 예시를 보여준 후 학습자들이 직접 모방시를 창작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문학 텍스트 형식에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핵심 단계였다.

두 번째 수업은 앞선 활동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과제로 작성한 감상문을 공유한 뒤, 개별적으로 준비한 PPT를 활용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주제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으며, 학습자들은 김춘수의 「꽃」을 통해 얻은 통찰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한국어로 표현하였다. 발표 과정에서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통합적으로 발휘되었고 동료 학습자와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발표 활동을 넘어 자기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수업 설계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교수자는 텍스트와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활동을 안내하되 토론과 창작의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학습자는 국적에 따라 모국어로 번역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교수자는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한국어로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이므로 수업 전 과정을 관찰하고 학습자의 산출물을 수집하여 4장에 사례 자료로 제시하였다. 주요 자료는 (1)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된 시, (2) 수업 중에 작성된 모방시, (3) 과제로 제출된 감상문, (4) 발표에 사용된 PPT이다. 이 자료들은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해석하며 창작으로 확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를 범주화하거나 일반화하지 않고 실제 수업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반응과 성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특정 활동이나 교수법에 집중한 것과 달리 김춘수의 「꽃」을 중심으로 전체 수업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4. 수업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수업 설계에 따라 실제로 운영된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가 각 단계에서 산출한 모국어로 번역한 시, 모방시, 감상문, PPT 발표 자료를 제시하여 문학 수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학습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사례 제시는 단순한 수업 흐름의 재현을 넘어 시 교육이 학습자의 의미 재구성과 표현 확장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 모국어 번역 사례

김춘수의 「꽃」을 읽고 시인의 육성 낭독과 작품 해설을 마친 뒤, 이어진 본격적인 활동은 모국어 번역과 토론이었다. 학습자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시를 번역한 후, 국적별 소그룹을 이루어 토론을 거쳐 하나의 공통된 번역시를 완성하였다. 그 결과물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p>私の彼の名前を呼ぶ前には 彼はただ 一つの仕事に過ぎなかった。</p> <p>私の彼の名前を呼んだ時 彼は私のところへ来て 花になった。</p> <p>私の彼の名前を呼んだように 私のこの色と香りに似合う 言葉で彼の名前を呼んでくれるように そこへ行くと私も 彼の花になりにたい。</p> <p>私たちはみんな 何かになりたいのよ あなたには私になつて、私にはあなたになつて 忘れられたい一つの理想しになりにたい。</p>	<p>在我呼唤他的名字之前 他只是个 我未曾经过的身影</p> <p>在我呼唤他的名字的时候 他向我走来 变成花</p> <p>就像我呼唤他的名字一样 属于我的花瓣和香气 谁又来呼唤我的名字 就这样我也会 成为他的花</p> <p>我们每个人都想 成为一些什么 你想成为我 我想成为你 想要成为一个无法被忘怀的眼神</p>
--	---

[그림 1] 일본인 및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번역본

이후 학습자들은 번역 과정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을 간단히 기록하였다.²³⁾

일본인 학습자들은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 간 표현상의 차이와 번역의 뉘앙스 문제에 주목하였다.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어휘 대응의 한계, 문법적 차이, 표현의 자연스러움 등을 고민하며 번역의 난점을 경험하였다.

- 한국어와 일본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팀에서 상담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가 재미있었다. 번역문에 각기 개성이 있었다.
- ‘그’로 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뉘앙스가 다르고, 주어의 표현 방식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 한국어 시에는 일본어에 없는 표현이나 직역하기 어려운 문장이 많다. 그러나 시의 의미를 고려하여 다른 일본어 표현으로 바꿔보는 과정이 새롭고 재미있었다.
- 일본어에서는 ‘~주다’ 표현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기 어려웠다. 작은 어미 차이도 표현하기 힘들었기에 번역가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번역 과정에서 의미 이해의 보완, 단어 선택의 다양성, 시적 뉘앙스의 약화 등에 주목하였다.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휘 선택의 폭과 시적 뉘앙스의 차이를 인식하며, 단어 하나가 작품 전체의 의미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하였다.

-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이 남아 있어 대체적인 의미 파악이 가능했지만, 중국어로 옮길 때는 양사의 사용이나 어휘 선택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 조별 토론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해석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예를 들면, ‘몸짓’이라는 단어를 두고 ‘손짓’, ‘모습’, ‘동작’ 등 여러 번역역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토론 하면서 시적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23) 학생이 작성한 글은 맞춤법이나 오타자 등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으며, 어휘 선택과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본문에 인용된 내용은 학습자의 전체 글이 아니라 대표적인 구절을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 같은 시를 번역하면서도 각자의 번역이 달라서 중국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다양성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문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를 중국어로 옮길 때 직역에만 의존하면 원문의 아름다움이 약화된다고 느꼈다. 특히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구절의 경우 직역은 의미 전달은 되지만 시적 감정은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모국어 번역 활동은 단순히 언어를 치환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적 언어의 여러 층위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해석을 비교하며 의미를 조율하는 협력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활동은 이후 모방시 쓰기와 발표로 이어지는 개념적·정서적 기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2) 모방시 사례

모국어 번역과 토론을 통해 작품 이해를 심화한 후, 학습자들은 김춘수의 「꽃」을 바탕으로 모방시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학습자가 작품을 단순히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적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자기 경험에 접목하여 재구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학습자가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창작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예시는 <그림 2>와 같이 김춘수의 「꽃」의 문장을 변형하여 일부를 빈칸으로 제시한 형태였다. 학습자들은 빈칸에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 사물, 혹은 경험을 대입함으로써 김춘수의 「꽃」의 반복적 구조와 상징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텍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원문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학습자 스스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변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시 말해, 모방시 쓰기 활동은 원작의 형식을 틀로 삼되 빈칸의 내용은 학습자의 개성과 정서로 채워지게 하여 구조적 이해와 창작적 적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였다.

<p>고양이</p> <p>고양이를 기르기 전에는 고양이는 다만 하나의 귀여운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p> <p>고양이를 기르게 되었을 때 고양이는 나에게도 와서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p> <p>내가 고양이를 기른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반려동물을 길러보라. 나도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p>	<p>_____</p> <p>_____기 전에는 _____은/는 다만 하나의 _____에 지나지 않았다.</p> <p>_____ (으)르 때 _____은/는 나에게로 와서 _____이/가 되었다.</p> <p>_____ 것처럼 _____ _____ _____이/가 되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_____이/가 되고 싶다.</p>
---	--

[그림 2] 수업에서 제시된 모방시 예시

학습자들은 <그림 2>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시화하였으며 그 결과물 중 일부를 <그림 3>,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쓴 이 작품들은 원시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각자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창작 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모방시는 김춘수의 「꽃」의 반복적 구조를 따르되 소재와 정서에서 뚜렷한 개성을 드러냈다. 아래 모방시에서 한 학습자는 디지털 도구를 소재로 삼아 「챗 GPT」라는 시를 창작하였다. 이 시에서 「챗 GPT」는 처음에는 단순한 ‘앱’에 불과했으나, 레포트 작성 과정에서 ‘나의 뇌’가 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대학생으로서 ‘챗 GPT’의 의존성과 학습 욕망을 시적으로 드러냈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작품에서는 대학 생활의 구체적 경험이 형상

화되었다. 학습자는 엘리베이터를 단순한 도구로 보다가 캠퍼스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교실에 도착한 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구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을 유머러스하게 재현하며 자기 경험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p>챗 GPT</p> <p>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챗 GPT는 다만 하나의 app에 지나지 않았다.</p> <p>대학 입학 후, 수업 레포트를 쓸 때 챗 GPT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뇌가 되었다.</p> <p>챗 GPT가 모든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나도 똑똑한 존재가 되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똑똑한 존재가 되고 싶다.</p>	<p>엘리베이터</p> <p>○○대에 오기 전에는 엘리베이터는 다만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p> <p>○○대에 다니게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는 나에게로 와서 생활의 빠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p> <p>내가 엘리베이터를 못 탄 것처럼 여러분도 등산해 보라.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다. 나도 교실에 도착한 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교실에 도착한 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p>
--	--

[그림 3] 학습자 모방시 사례 1·2

또 다른 학습자는 한국 유학 생활의 일상 공간을 반영하여 「CU」라는 작품을 썼다. 시 속에서 편의점은 ‘하나의 한국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제2의 숙소’로 변모한다. 이는 유학생생활에서 편의점이 가지는 정서적 의존성과 친근함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시」라는 작품은 모방시 활동 자체를 주제로 삼아 자기반영적으로 쓴 사례다. 학습자는 ‘현대시’를 ‘나의 숙제’로 규정하고 왜 갑자기 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문을 시 속에 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이 드러나며, 모방시 쓰기 활동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는 계기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U	현대시
<p>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CU는 다만 하나의 한국 편의점에 지나지 않았다.</p>	<p>수업을 듣기 전에는 현대시는 다만 하나의 문학 유형이 지나지 않았다.</p>
<p>○○○ ○○○에 살게 되었을 때 바로 밑에 있던 CU는 나에게로 와서 제2의 숙소가 되었다.</p>	<p>수업이 시작됐을 때 현대시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숙제가 되었다.</p>
<p>내가 매일 같이 CU를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배고픔을 챙겨주는 무언가를 찾아봐라 나도 어떤 사람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다.</p>	<p>내가 현대시를 모방해서 써야 하는 것처럼 내 친구들도 다 옆의 예를 보고 비슷한 시를 창작해야 한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CU 같이 언제나 열려 있는 문이 되고 싶다.</p>	<p>우리들은 모두 무언가 알고 싶다. 왜 갑자기 시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앞으로 문학 수업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고 싶다.</p>

[그림 4] 학습자 모방시 사례 3·4

이처럼 학습자들이 쓴 모방시는 단순한 언어 연습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관심사·문화적 배경·정체성을 투영한 창작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문학 교육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언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 자기 성찰, 다문화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3) 감상문 사례

김춘수의 「꽃」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시를 읽고 각자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의 글은 작품 해석의 수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²⁴⁾

24) 감상문 분석은 학습자 텍스트에 실제로 나타난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범주를 재구성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모든 감상문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해석의 흐름

(1) 관계와 소통의 의미 발견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 학생은 시 속 행위를 단순한 호명이 아닌 관계 형성의 출발점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보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작품을 자기 성찰과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로 확장시켰다.

(2) 시적 언어의 철학성에 주목

“처음에는 ‘너무 철학적인데... 이해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이 시에 담은 감정들이 이해되었다. 시인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다. 비유적인 표현도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여기서는 시의 철학적 사유와 비유적 언어에 주목하였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철학적 성찰이 담긴 언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시적 간결함이 독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 언어의 미학적 특성을 파악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존재 의미와 사회적 연결 강조

“이 시를 읽고 저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타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느꼈다.”

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 요소를 추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섯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감상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타자와의 관계 속 인정에서 찾았다. 학습자는 작품의 주제를 철학적·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인간 보편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투영

“내가 아끼는 말은 일기일회(一期一會)이다. 이 시의 ‘꽃’은 사랑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추억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또 내 이름 ‘사키’는 한자가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누군가의 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이 시가 겹쳐져 흥미롭게 읽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이름과 문화적 배경(일본어 개념 ‘一期一會’)을 작품과 연결하였다. 이는 작품을 한국적 맥락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문화와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한 사례이며 한국문학 수업이 학습자의 정체성 탐색과 상호문화적 이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새로운 깨달음으로의 확장

“처음에는 그냥 보통 풍경을 쓴 것 같았는데, 다시 읽으니 ‘사는 의미는 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생긴 나뭇가지에 핀 꽃처럼, 사람들이 꽃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이 감상은 처음에는 단순 묘사로 보였던 시를 다시 읽음으로써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로 발전시킨 경우이다. ‘꽃’을 존재와 연결의 은유로 해석하면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학습자의 사고 확장 과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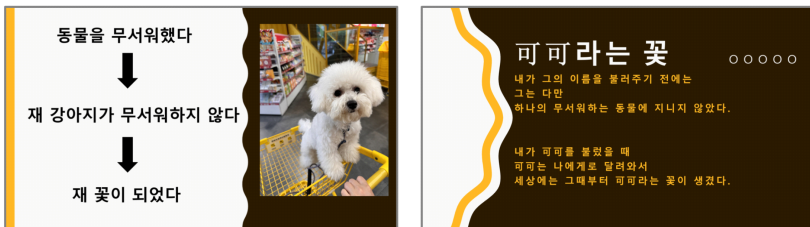
이처럼 학습자들의 감상문은 관계의 의미, 철학적 사유, 존재 가치, 개인적·문화적 배경, 새로운 깨달음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감상문 쓰기가 학습자가 작품을 자기 경험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자기 성찰적 학습 과정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감상 활동은 곧바로 모방시 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즉, 감상은 단순한 이해 단계를 넘어 학습자가 작품 언어를 자기화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적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PPT 발표 사례

감상문 발표가 끝난 뒤 학습자들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주제로 PPT를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이 활동은 김춘수의 「꽃」의 시적 구조를 개인적 삶과 연결하고 이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는 단계였다. 발표 주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언어와 이미지로 재현하며 문학 텍스트와 삶의 경험을 통합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 자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였다. 첫째, 김춘수의 「꽃」에서 차용한 반복적 구조와 상징적 표현을 모방시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학습자가 선택한 의미 있는 대상을 PPT에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추상적 시어(詩語)를 자신만의 구체적 경험에 투영하였다.

아래 <그림 5>는 학생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 학습자는 자신의 반려견 '코코(可可)'를 발표 주제로 삼았다. 그는 PPT에 원문 김춘수의 「꽃」의 주요 구절과 자신이 창작한 모방시를 병치하여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동물'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어서 반려견의 사진과 이름을 강조하여 시적 상징과 개인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림 5] 학습자 PPT 발표 예시

다른 학습자들 역시 각자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주제로 삼았다. 어떤 학습자는 가족을, 또 다른 학습자는 오랜 우정을 지닌 친구를, 혹은 특정 추억의 장소와 사물을 선택하여 PPT에 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나의 소중한 존

재가 꽃이 된다'라는 구조를 변형하며 각자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발표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학습자들은 PPT 제작과 발표를 통해 한국어로 자기 경험을 서사화하고 조직화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둘째, 동료들의 발표를 들으며 타인의 문화적·개인적 배경에 공감하는 경험을 하였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언어 표현 능력, 창작적 변형 능력, 발표 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PPT 발표는 김춘수의 「꽃」을 주제로 한 수업의 종합적 단계로서 개인적 의미 발견 → 창작적 재구성 → 공동의 공유와 상호문화적 소통으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을 완성하는 핵심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을 자기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학습 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문학 교육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 산출물은 주로 개인 활동 중심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국어로 번역하는 토론 과정에서의 소그룹 상호작용이나 PPT 발표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 피드백과 같은 공동체적 학습 과정 전반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발표 후 질의·응답, 상호 피드백 등 동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개별 산출물 분석에 초점을 둔 관계로 그 과정이 상세히 제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학 수업 사례를 통해, 김춘수의 「꽃」을 활용한 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수업은 '작품 감상 및 해설 - 모국어로 시 번역 - 모방시 쓰기 - 감상문 발표 - PPT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작품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기 경험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재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먼저 모국어 번역 활동에서는 학습자들이 김춘수의 「꽃」 속 핵심 표현을 자신의 언어로 옮기면서 의미 선택의 차이와 해석의 폭을 드러냈다. 일부 학습자는 ‘이름 부르기’를 직역적으로 이해한 반면 다른 학습자들은 이를 관계의 형성이나 존재의 인정과 연결하여 번역 언어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모방시 쓰기 활동에서는 원문 김춘수의 「꽃」의 반복 구조와 함축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친구·반려동물·추억 등 각자에게 특별한 대상을 새로운 ‘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 언어를 모방하는 동시에 자기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어진 감상문 발표에서는 ‘이름 부르기’라는 행위를 관계 형성, 존재의 의미,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시의 철학적 언어와 상징을 자기 삶에 투영하며 문학이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PPT 발표에서는 개별 산출물을 시각 자료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을 촉진하였다. 발표 주제인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학습자가 작품과 자기 삶을 통합적으로 사유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으며 발표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학습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문학 수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자기 성찰, 창의적 표현, 상호문화적 이해를 동시에 길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간결하면서도 상징성이 풍부한 김춘수의 「꽃」은 학습자 개인의 삶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텍스트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교수자는 텍스트와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조력자로서,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탐색하고 창작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주에 걸쳐 진행된 단기 수업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습자의 산출물을 질적 분석 위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다 장기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양적·질적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문학 교육의 효과를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춘수의 「꽃」을 넘어 다른 텍스트와 활동 유형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

학 교육 모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김춘수의 「꽃」 수업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문학 교육이 언어 학습을 넘어 언어·문화·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교수자들에게도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수업 설계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고은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 방안 연구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9, 중앙어문학회, 2019.
- 김금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4.
- _____, 「한국어 학습자의 비유적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모방시 쓰기 수업 연구」, 『인문논총』 46,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김동환, 「한국 문학 및 한국 문화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해외 한국어 관련 학과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5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24.
- 김현정,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문학 수업 사례 연구 -윤동주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9,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 오정미, 「문화적응을 적용한 문화교육 수업 사례 연구 -K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12.
- 위햇님·오지혜, 「일본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현황과 방향 -교양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81, 우리말학회, 2025.
- 주재환, 「패러디 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 45,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21.
- 한옥순,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문 작성능력 방법 연구 -김춘수 <꽃>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8, 한국작문학회, 2013.
- 한혜민·조영미,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패러디 시 쓰기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3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21.
- Eshmatov, A. B., & Abduramanova, D. V., “The role of parody in postmodern literature”, *Modern Education and Development*, 15(7), 2024.
- Moldagali, M., Osmanova, Z., & Nurgaziyev, T.,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innovative poetry teaching methods on reading, writing,

and comprehension skills”, 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5(5), 2024.

Naik, C. V., Biradar, R., Putta, N. R., & Ramanjaneyulu, K., “The role of literature in language pedagogy: Exploring innov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English through literary works”,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Cycle Research, 16(6), 2024.

Nishihara, T., “Evaluative comprehension for poetry with parody poems”, Bulletin of the Faculty of Human Cultures, Prefectural University of Hiroshima, 8, 2013.

2. 기타 자료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검색일: 2025.09.01.)

유튜브(<https://youtube.com/>, 검색일: 2025.03.14.) - 故김춘수 시인 육성으로 듣는 ‘꽃’ 낭독 [추모특집 다큐 시인 김춘수, 바다로 돌아간 처용]

<Abstract>

A Case Study of Korean Literature Clas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Focusing on Kim Chun-soo's "Flower" -

Son, Hyun-Mee

This study presents a case study of Korean literature class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the use of Kim Chun-soo's poem "Flow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potential and pedagogical value of incorporating literary texts in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The class was structured into five stages—poem appreciation and explanation, translation into the learners' first languages, imitative poem writing, reflective essay presentations, and PPT presentations—and the outputs produced at each stage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o examine learners' meaning-making processes and expressive patterns. The findings show that the learners reconstructed the meanings and nuances of key poetic expressions based on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In the imitative writing task, they transformed personal subjects such as family, friends, and memories into new 'flowers,' drawing on the form of the original poem to express their emotions and experiences through poetic imagery. In the reflective essay presentations, the learners expanded the idea of 'calling a name' to encompass relational connection, recognition of existence, and explorations of cultural identity, demonstrating deeper levels of reflection. The subsequent PPT presentations facilitat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mpathy, and interaction as learners visually organized and shared their creative texts and personal narrativ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Flower" functions as an effective literary text that fosters emotional engagement, self-reflection, creative expression, and cultural understanding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However, the study is limited by its short two-week dur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from a single program. Future studies should involve learners with more diverse backgrounds and examine the longer-term effects of literature-based instruction.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Kim Chun-soo's "Flower", Classroom Case Study,
CAMPUS Asia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 논문투고일: 2025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4일 ·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26일